

# 對 話

主 幹

## 달라지는 세계

### 1) 夫婦制度의 적신호

요새 歐美의 사회 移變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나는 것은 익히 듣고 보고 있는 일이지만 外誌를 받아 볼 때마다 새삼 놀라게 되며 이 歷史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아연해진다. 그중에 夫婦制度의 移變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스피켈)誌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대충 다음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화거에는 子息은 父母 밑에서 기르는 것을 當然한 原則으로 알았고 또 비록 夫婦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子息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웬만한 문제 따위는 묵살하는 것을 美德으로 보았다고 보기도 사할된 의무와 권리로 알았다. 그런데 최근 西歐에는 이런 것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個人 本位로 (과감히) 부부 내지 가족에서 탈출하는 수가 격증하고 있다. 가령 서독의 예를 들면 74년도 현재로 子女를

홀로 떠맡고 직업과 家政을 살피는 외톨이 아버지가 10萬名이며 외톨이 엄마는 그보다 6배가 넘는 65萬名에 달한다. 그러나 외톨이로 子女와 家政을 끌고 가는 엄마가 압도적으로 많다. 외톨이로 모든 책임을 진 엄마 중에 離婚 또는 완전 別居하는 이들이 32萬名, 死別의 과부가 22만 7千, 그리고 私生兒를 낳아 키우던 엄마가 10萬名이라고 한다. 그 결과 父母 중 한쪽만 가진 未成年 아이들이 무려 百 20萬名이나 된다. 이 數字는 아이들은 14名 중의 하나 꼴이 한현 부모 밑에 자라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美國에는 7名중 한 아이가 그런 상태이니 그해도 미국보다는 낫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현상이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69年度와 74年度의 통계를 비교하면 외톨이 아빠가 꼭 倍로 증가했으며 외톨이 엄마는 1/3로 증가된 것이다.

이것은 독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이른바 풍요한 사회의 한 例에 不  
過하다. 이런 도대체 이 歷史가 어  
다르 가는 징조며 이런 현상이 加  
速度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理由를 常識線에서 말한다면  
먼저 풍요사회가 된 것이 첫 이유일  
것이다. 그렇게 쉽게 이혼할 수 있  
는 것은 獨立하고도 살 수 있는 收  
入의 길 또는 사회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이라. 둘째는 個人主義의 전  
통이 마침내 사회구조에 변화를 가  
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個人主義의 근거는 人格의 尊嚴  
性 존중에 바탕을 두었다. 그러므  
로 個人의 自由와 선택권이 존중되  
었다. 이 바탕 위에 女權운동이 박  
차를 가했고 그에 따라 여성의 사회  
진출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정 보  
다도 個人의 幸福本位를 재빨리 선  
택할 수 있게 됐다. 셋째로 여기에  
덧붙여 일어난 이른바 性的 革命이  
라는 颱風이 이런 길을 부채질하거  
렀다. 이것은 夫婦間의 貞操라는  
의식을 희박하게 했고 이에 따라  
家族單位의 공동체의식이 희박하게  
됐다. 끝으로 또 하나의 原因이며  
注目할 것은 큰 歷史의 潮流와 관  
련된 것으로서 脫出(脫出)의  
풍조다. 낡은 가치관, 낡은 체제에  
점점 염증을 내고 무엇인가 새로운  
삶의 모델을 志向하고 있다. 그것  
이 脫民族, 脫體制, 脫傳統의 현상

을 일으키고 있는 데 家族制度도  
틀론 그런것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여기 기묘한 현상과 문제  
가 있다. 문제는 위선 後世들의 온  
상이 깨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74년 서독의 統計는 어린이 14名中  
한명 꼴이 외톨이 父母 밑에 내맡겨  
졌으며 美國은 7명의 하나 꼴이 그  
런 상태에 있다. 저들은 在來의 어  
린이의 〈품〉인 가정을 잃은 채 제  
멋대로 자라나는 셈이다. 저들은  
우리가 말하는 不幸한 幼年期를 보  
내는 셈이니 萬一 우리의 一般論에  
서 범죄자가 不遇한 家庭환경에 原  
因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래  
로 나가다가는 犯罪的 要因을 지닌  
人間이 幾何급수적으로 늘어나리다  
는 결론이 된다. 그렇게 보면 個人  
主義가 人類의 未來를 亡진다는 결  
과를 내다보게 된다. 또한 외톨이  
父母는 두가지 일을 혼자 해야 한  
다. 作家, 會社員, 官吏등 여덟 층  
의 외톨이 아파들의 정황이 소개됐  
는데 저들은 홀로 家政을 보살피고  
어린 것을 돌보면서 제 일을 해야  
하니 일도 제대로 안되고 가정, 그  
리고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도 제대  
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家庭婦  
를 채용할 수도 없고 그럴려는 사  
람도 없다. 그러나 個人主義的 自  
由를 찾아 선택한 길은 오히려 자  
신을 노예화하는 결과를 가져 온 셈



이다.

그러나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不可避한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생활을 그대로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어떤 공동적인 모색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 한 현상은 이른바 「콤문」이라는 공동체다. 콤문이란 여러 가족이 한 데 모여 한 단위의 생활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들 문제나 家政문제를 交代분담하며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몇가정이 單位가 되어 거기 가입된 家族들이 번갈아 가면서 어린이들을 하루씩 떠 맡는 것인데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아이들을 그 집 에 맡기고 저녁 퇴근할 때 데리고 오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도 문제 해결이 안된다. 그래서 정부 차원이 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의 영입으로 託兒所를 확대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데 맡겨 버리고 週1回 정도씩 父母중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이러니 父母—子息間의 情이란 물론 과거의 그것에 다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直係關係는 냉정해 지고 그대신 다른 아이들과 집단적으로 사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서 기묘한 현상을 본다. 個人主義에서 출발해서 孤立된 결과는 어쩔 수 없이 脫家族化하는

반면에 다른 次元에서 사회적 단위로 생활양상이 移變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새로운 理念에서 사회화되는 것이 아니라 不可避한 상황에서 강요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하여간 이런 과정에서 個人主義는 갈 곳을 다 갔으며 그 과정에서 가족제도를 위기에 몰아넣고 결과로는 다시 사회적으로 새 공동체를 모색할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個人主義의 人間을 혁명하여 다시 家族을 單位로 하는 復舊으로, 아니면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의 上陸 中 어느 하나에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왔다.

## 2) 그리스도 교회의 진흥

西歐의 千年의 그리스도王國으로써 제도적 교회의 礎石이 얼마나 튼튼해졌나는 그 무엇보다도 우뚝 우뚝 선 교회건물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유지된 中世都市는 어디에 가 보아도 行政府인 (市廳)과 敎會가 그 동력의 中心部 廣場에 대단히, 또는 對角的 위치에 세워졌는데 그것은 그 세계를 지배하는 隻壁 역할을 한 구체적 모습이다. 들의 양상은 다르나 서로 그 권위를 시위하여 그 호화함과 雄大함을

경쟁한다. 市民에게 대한 權限도 側面은 다르나 꼭 같았다. 그런 흔적이 지금도 남아서 결혼도 法的 허락과 教會의 허락이 병행해야 비로소 合法的이며, 정부는 教會의 일을 심부름하여 세금징수 때 教會에 내는 獻金(세금)인 종세금액의 1/10에 해당되는 것을 거두어 신교 카톨릭 本部에 전달한다. 그러나이 양상은 급변해가고 있다.

총인구의 98%의 그리스도교인(신교, 카톨릭을 합쳐서)을 자랑한 지난 69년에서 6年 사이인 74년까지 百萬以上 신교교도와 36萬의 카톨릭信徒가 教會를 떠났다. 이것은 每年의 居住申告할 때 종교난에서 기입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數字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매년 急増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가령 68年度에 신교에서 60,807명 카톨릭에서 27,995名이 脫教會였는데 69년에는 約 倍로 늘고 74년에는 신교 215,000名 카톨릭은 70,000名이 떠났다. 그런데 注目되는 것은 教會를 공식적으로 떠난 數中에 18세부터 30세까지가 39%를 차지하며 30—40까지 27%를 차지했다는 통계인데 이것은 40才이하가 68%나 된다는 말이다. 18才까지는 父母의 同意가 있을 때만 대교회 태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참고 있어야 하고 自主 결정을

할 수 있는 18세에 脫교회에 그처럼 급증하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一般的으로 말할 수 없으나 爲先 경제사정과 관련이 있다. 가령 기업의 支配人급으로 脫교회 그들中 年 6萬—10萬마르크 收入者中 27%, 10萬—15萬 以下가 20%, 15萬 以上이 41%가 된다. 이것은 收入이 많을 수록 教會를 떠나는 율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教會를 떠나는 노동자들은 脫교회 數者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그들의 收入에서 教會稅를 내면 家計에 均衡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여간 이같은 脫교회 현상은 독일 教會의 위협이며 무엇보다도 그만큼 教會의 경제적 收入의 축소를 意味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차질을 가져 온다고 教會 책임자들은 걱정을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왜 20—40代 靑年들이 教會를 떠나느냐 하는 문제가 더 크다. 저들은 산업사회에서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인가?

사회 또는 教會측에서 조사한 여론에서 공통된 것은 脫교회한 저들 중 극소수를 빼고는 大部分 여전히 그리스도人으로써 信仰안에 머물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저들은



종교(그리스도교)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制度的 敎會에서 떠났다는 사실이다. 그런 왜 敎회를 떠나나? 여론 조사에 의하면 爲先 敎회가 이미 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稅金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반면으로 해석하면 敎회가 信徒들이 바친 獻金으로 하는 일에 不信을 나타내는 것이다. 독일 敎회자체는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으며 銀行, 기업체까지 운영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살만 쥘게 하고 '實際로' 그리스도교의 사명을 의면하는 데 대한 저항이 탈교회현상의 理由中 하나다. 20-40의 世代는 사회의식이 예민하다. 그런데 敎회는 스스로 비대해져서 기동성을 잃고 사회적 요청에 호응하지 못하며 여전히 傳統만 고수하는 나머지 一천통 고수해야 결국 기득권 수호인데 一歷史의 方向에서 지각생이 됐다. 이런 것이 저들에게 失望의 原因이 되고 있다. 이와 병행해서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의 실존적 문제에 대해서 敎회의 실패나 활동은 거의 저들의 측구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서독의 노동조합은 정부와 자본주와 더불어 第三의 勢力이 될 만큼 強力하여 저들의 意識을 脫敎회化하는 데 作用하고 있다.

要는 敎회의 體質改善이 문제다.

中世紀 이후부터 고수한 체제와 富에 安住하여 좀처럼 그 잡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限 문제는 점점 커져 民衆의 원한의 대상까지 될 것이다. 말하자면 저들의 富가 저들을 弱化시키는 것이며 時代의 지각생이 되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一部 先覺者들이 敎회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개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싸우거나 아니면 그리스도人으로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등에게 民衆을 빼앗길 위험성을 눈앞에 보고 이들을 그리스도人으로 지키기 위해서 저들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저들의 현실적 문제를 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것이 산업선교라는 형식으로 나타나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 意義와 方向을 찬동하는 數는 적으며 敎회 자체는 이런 추세에 못이겨 약간의 관심을 표명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만 있을 수 없는 단계에 왔다. 敎회의 건물은 웅장하나 출석율은 전교인수의 2-3%도 안되며 敎회에 내는 稅金도 계속 삭감되며 脫敎현상만이 아니라 敎회내부의 젊은 층의 압력도 대단하다. 한 동안은 저들을 反敎회 一反그리스도교라고 단정해서 敎회자체가 더 경화증을 일으켰으나 지금에 와서는 敎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없으면 교회의 存在性 문제에까지 위협을 느끼므로 결국 一大 혁신이 不可避한 처지에 있다. W. C.C.의 슬로건이나 宗教의 꾸준한 선각자적 투쟁은 결국 기성교회의 체질을 돌 하나 돌 위에 첩놓이지 않게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교회를 (사흘 만에) 탄생케 하는 기적을 일으킬 것이냐 아니면 고스란히 사회와의 유기성을 잃고 군살처럼 붙어 있다가 그대로 歷史에서 도태되어 버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써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교회는 없어지는 限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비록 量的으로는 줄어 들지 몰라도 오히려 強力한 意識에서 새로운 歷史를 창조하는 절대 勢力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이러한 西歐교회의 현상을 보면서 나는 우리 나라의 교회들의 自己肥大主義 현상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교회는 자체를 살찌우면 둔탁해지며 커지면 커질 수록 그것을 지키는 데 노예가 되어 결국 무력해 진다. 교회자체의 체구는 최대한 작아야 한다.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동적일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개교회들의 예산이 커지면 커질 수록 自體소비의 率만 늘어나고 있

다는 현상에서 폭로되고 있다.

## 新鮮한 아침 風情

그리스도인이요, 言論人인 金容九兄의 에세이集이 보내졌다. 그 제목이나 책단장에서 벌써 그 친구의 체취를 느낀다. 가끔 만나는 일이 있으면 곧 잘 얘기에 취하기도 했고 또 現存의 誌友이면서 여러차례 글도 써보내 준 친구의 글인지라 틈나는 대로 읽어 내려 갔다. 놀랜 것은 그의 博識이다. 비록 수록된 것이 모두 짧은 글이기는 하나 詩, 그림, 음악, 作品 등 藝術的 탐색의 흔적이 담백 담겼으며 東洋의 古典에서 西洋의 哲學, 그리스도교에서 佛敎에 이르기 까지 광범하게 關心을 기울이고 있으며 丁茶山에서 사르트르, 본페에 이르기까지 많은 人物들을 추적한 흔적도 뚜렷하다. 言論人이라 演出의 범위가 넓을 수 밖에 없나니 치드라도 언제 大藏經, 東國正韻陀羅尼經 등에 까지 손이 미쳤는지 놀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 수록한 글들은 대부분 觸感에 걸린 “風情”의 묘사다. 그러나 그 “風情”을 느끼고 보는 밑바닥에, 그 觸感을 作用시키는 배후에 主體가 있다. 그러기에 비록 짧은 글에서도 核心을 찌르며 산책에서 그린 수채화 같은 산뜻한



맛이 있으면서도 北歐의 우울이 있다. 책 제목이 「신선한 아침 風景」이듯, 그는 산뜻한 희망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의 꿈보처럼! 그러나 그는 신선한 아침 공기만 마시기 위해 꽃밭에 해매는 나비만은 아니다. 까닭은 현실은 마냥 아침만이 계속 되거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風情만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갈구하는 마음은 汚染된 공기에 찡그린 마음을 노정한다.

그는 後紀에 「문명의 새벽부터 현대까지 사람들은 어느 터를 잡고 살의 동시대적인 공기를 마시고 風物의 유통 속에서 사는 것이다」고 했다. 〈문명의 새벽〉, 〈터를 잡고〉(동시대적 공기)를 마시면서 風物의 유통 속에 산다? 이런 삶이 현실이다. 문명의 새벽은 신선한 源泉, 〈터를 잡고〉는 벌써 分離된 各異한 實存의 상황, 동시에 공기는 이미 오염된 것, 그래도 함께 마셔야 할 세계공동체적 宿命性이다. 이렇게 삶은 엉키고 실려있다. 그래서 新鮮한 아침 風情은 동경의 대상이지 현실은 아니다. 이 冊의 차폐는 아침, 낮, 저녁, 밤으로 엮여졌다. 그러나 歷史의 현실은 그렇게 비끄러지듯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希望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에서 「하나

의 사회의 지저 향방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반드시 유익하지 않은 않은 불균형을 가져 올 수도 있다.」고 하르프 근경에 지나치게 우리것만 내 세울려는 이른바 韓國의 인 뿐에 대한 경고를 하며 〈苦悶하는 大學生〉, 〈매봉江〉, 〈草堂〉에서 〈티브 스토리〉로 뛰며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 同時에 일어나는 현실을 노정한다.

그는 「風情」을 그렸다. 그러나 視野에 들어오는 오만가지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얼른 보면 처나리즘의 전시장 같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風景)을 그리지 않는다. 그는 〈삼파만상〉에서 〈전체〉라는 것을 보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밑바닥에 흐르는 主流다. 그것은 바로 그가 믿는 宗教적인 것이다. 그는 종교를 논하여 “인간과 사회의 어느 측면을 보지 않고, 그 전체상을 보는 것이 종교이다. 종교는 예술, 문화, 도덕, 정신적인 측면과 복지, 경제, 정치등 사회적인 측면을 통틀어, 生의 전 영역 속에 놓여진 인간과 사회를 대하는 것이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지금 여기의 삶에 대한 총체적 전망을 주고, 그에 입각해서 살아야 할 양식을 요청하는 것이 종교이다”고 한다(181면). 그는 인간을

<22페이지에 계속>



이 “저주 선언” 서두에 밝혔다.

“들으라. 너 아마샤여. 야웨의 하시는 말씀을”. 만일 이 서두가 없었다면 아모스는 자기 주방에 대한 복수심의 발로밖에 아니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여 그 패성 전체가 사로 잡혀갈 운명이 올 때, 아마샤의 아내나 자식들이나 그 소유한 땅이 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아마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으리라”였다. “더러운 땅”은 제사를 드리는 성소 안 “거룩한 땅”과 비교된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 제사를

드리는 성소는 적군에게 짓밟히고 말 것이다. 이방인의 발은 이 땅은 “더러운 땅”이 아닐 수 없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종국을 볼 수 밖에 없다.

만일 아마샤가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로보암에게 야웨의 부서운 역사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알리고, 또 그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최고 책임자인 여로보암 왕이 아마샤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나라 역사는 망하지 않았을텐데!! 우리는 상상도 해 본다.

### <52페이지에서 계속>

二重의 市民權을 가졌다고 하므로 세계 안에 살면서 세계를 넘어서므로 세계안의 風景에 關心하면서도 그것에 노예되지 않는 삶을 말하므로 전체를 살리는 삶을 주장한다 (두개의 市民權, 176이하).

그는 自然的 風景에 민감하다. 아침에서 밤까지 버려지는 風情과 自然의 계절을 대조한다. 그러나 그의 自然風景은 寫眞機에 담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는 〈除夜〉에서 “황혼은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의 길목이다. 그것은 아쉬움 없이는 맞을 길 없다. 아마도 그것은 사람

이 시간에 붙이는 요구가 아니라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의 恣意이지 때문이다”고 한다. 詩는 哲學의 한 토파이다. 그러나 그 보다는 限界의 存在로서의 人間無常의 노래로 들린다. 그러나 그는 無常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는 限界線에서 항거할 수 없는 宿命 같은 絕對意志와의 해후를 조용히 맞이 한다.

그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게 비추인 風情에게 많은 설교를 시키고 있다.